



# 광주시청 전용태 근대5종 개인·단체 금메달 '2관왕'

### 아시안게임 개인전 2연속 우승 광주·전남 연고 선수 첫 금메달

남자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대한민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전용태는 24일 중국 항저우의 푸양 인후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개인전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508점을 획득, 대표팀 동료 이지훈(LH·1492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용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개인전 2연패에 성공했다.

광주·전남 연고선수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용태는 이지훈, 정진화(LH·1477점)와 단체전 1위도 합작,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중 첫 2관왕에 오르는 영예도 누렸다.

각국의 개인전 상위 3명의 점수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 한국은 개인전 1위 전용태, 2위 이지훈, 4위 정진화의 점수를 합산해 4477점을 얻어 중국(4397점)을 제쳤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2014년 인천 대회 뎀 중국이 우승했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참가 선수 전체가 한 차례씩 맞붙는 20일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22승 6패를 기록해 264점을 따내며 선두로 나선 이지훈이 이날 첫 경기인 승마에서 갑점 없이 완주에 성공하며 300점을 추가, 564점으로 초반엔 선두를 내달렸다.

이때 이지훈과 2위 리수환(중국)의 격차가 30점 가까이 돼 우승에 바짝 다가간 듯했다.

펜싱 랭킹 라운드 최하위 2명의 맞대결부터 아래에서 차례로 올라가며 승리할 때마다 1점을 주는 보너스 라운드에서도 4점을 추가하며 이지훈이 568점으로 선두를 질주했다.

하지만 이어진 수영에서부터 디펜딩 챔피언 전용태의 폭풍 질주가 시작됐다.

펜싱을 마쳤을 때까지 5위였던 전용태는 수영에서 출전 선수 전체 1위 기록에 해당하는 1분 59초 28로 수영 점수 312점을 추가, 단숨에 이지훈에 이어 중간 성적 2위로 올라섰다.

앞선 3개 종목 합산 성적에 따라 출발 시간을 달리하는 레이저 런에서 이지훈이 가장 먼저 나섰고, 전용태는 32초 늦게 출발해 중반까지는 이지훈이 우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막판에 접어들며 전용태가 앞지르기에 성공했고, 결국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끊으며 2연



24일 중국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전용태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를 확정 지었다.

뒤이어 이지훈과 리수환(1484점 동메달), 정진화가 들어오며 한국의 단체전 우승도 결정됐다.

이지훈은 이날 연습 마장에서 낙마로 뇌진탕 증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투혼으로 값진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를 가져갔다.

함께 출전한 서창완(전남도청)은 개인전 8위(1424점)에 자리했다. 한국은 이날 앞서 열린 여자 개인전 김선우(경기

도청)의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까지 이번 대회 근대5종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로 출전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연합뉴스

## 태권도 품새 강완진 첫 금 ... 여자부 차예은도 우승

### 품새 종목 금메달 2개 석권

한국 태권도 품새 종목 간판 강완진(홍천군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강완진은 24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남자부 개인전에서 대만의 마원중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섰다.

강완진은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전 1·2경기에서 각각 8.000·7.460점을 받아 마원중(7.880·7.080점)을 눌렀다.

이로써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을 통틀어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이 된 품새는 당시에도 우리나라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5년 전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강완진은 이번에는 개인전 정상에 서며 2연패의 기쁨을 누렸다.

가로·세로 각각 12m의 경기장에서 경연하는 품새는 7명의 심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5명의 평균 점수로 성적을 낸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부터 8강까지 1·2경기 모두 공인 품새를 펼치게 되고 준결승과 결승에선 1경기 공인 품새, 2경기 자유 품새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린 강완진은 별다른 위기 없이 우승을 차지했다.

강완진은 8강 1·2경기에서 7.780·7.810점을 받아 태국의 노트파트카이오칸(7.520·7.560점)을 넉넉하게 눌렀다. 4강에서도 7.780·7.040점을 얻어 베트남의 쩌 호 주이(7.640·6.600점)를 격파했고, 결승에서도 실수 없이 제 실력을 발휘했다.



태권도 품새 개인전 남자부 금 강완진. /연합뉴스



태권도 품새 개인전 여자부 금 차예은. /연합뉴스

강완진은 최근 국제대회마다 우승을 거머쥐며 매서운 기세를 뽐내며 명실상부 한국 품새의 '간판'다운 위상을 굳히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품새 개인전 1위는 강완진의 차지였다. 지난해 열린 아시아품새선수권, 고양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부 정상에 섰다.

이어 태권도 품새 여자부 개인전에 나선 차예은(경희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에 또 하나의 금메달을 안겼다. /연합뉴스

차예은은 같은 날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의 니와 유이코를 꺾고 아시아 정상에 섰다.

차예은은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전 1·2경기에서 각각 7.860·7.220점을 받아 니와(7.620·6.700점)를 눌렀다.

직전 남자부 개인전 결승에서는 강완진(홍천군청)이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 대한민국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품새 종목에 걸린 2개 금메달이 모두 '중주국' 한국에 돌아갔다. /연합뉴스

## 김선우 여자 근대5종 뜻깊은 은메달

### 등록선수 29명 첫 메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4일 개인전 은메달로 대한민국의 등록선수 29명 중 첫 입상 소식을 전하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선우(경기도청)는 한국 여자 근대5종을 이끌고 온 핵심 멤버다.

초등학교 시절 트라이애슬론(철인3종)을 먼저 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운동 신경이 뛰어났던 그녀는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사격+육상)을 모두 하는 근대5종을 고교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1996년생인 그녀는 2012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고등학생이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뎀 한국의 사상 첫 여자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태는 값진 경험을 했다.

201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17년까지 2연패를 달성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경쟁력을 보였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13위로, 당시 한국 여자 선수 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18년 5월엔 헝가리 케치케메트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3차 대회에서 3위에 올라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월드컵 입상 기록을 남기는 등 역사를 써 내려왔다.

김선우와 한 살 많은 선배 김세희(BNK저축은행)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한국 여자 근대5종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전만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김세희가 은메달, 김선우가 동메달을 획득



근대5종 여자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선우가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뎀 김세희가 여자부 최고 성적을 11위로 갈아치웠고, 김선우는 17위에 자리했다.

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선전을 이어가며 단체전이 부활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개인·단체전 석권을 바라봤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이 승마에서 잇단 불운으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메달 경쟁에서 떨어진 사이 김선우가 자존심을 세웠다.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 런 중간에 선두로 치고 나가며 한국 여자 근대5종의 사상 첫 개인전 우승을 노려봤으나 사격에서 주춤하며 2위로 들어온 김선우는 아쉬움의 눈물을 쏟았지만, 한국의 이번 대회 첫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연합뉴스